Today Chart Bond

2025. 12. 19

채권 우혜영
whydele@ls-sec.co.kr

12월 BOJ Review: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하며 올해를 마무리

2025년 12월 금융정책 결정 내용

- 임금과 물가가 함께 완만히 상승해 나가는 메커니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
- 향후 전망 기간 후반에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%의 '물가안정목표'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에서 추이할 것이라는, 기본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

美 경제 및 통상정책 영향

-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, 낮아짐

임금

- 내년은, 올해에 이어 확실한 임금 인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
- 기업의 적극적인 임금 설정 행동이 중단될 리스크는 낮음

물가

- 임금 상승의 판매 가격 전가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,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음

2%의 '물가안정목표'의 지속적·안정적 실현의 관점에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

단기금리(무담보 콜 O/N): 0.75% 정도로 인상(기존: 0.5% 정도)

- 실질금리는 큰 폭으로 마이너스 지속돼 완화적인 금융환경 유지 → 경제 활동을 확실히 지원
- 전망이 실현된다면, 경제·물가 정세의 개선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

내년에도 기대되는 높은 임금 인상률.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 마이너스

	렌고(노조) 임금 인상 목표	경단련(사측) 임금 인상 위치	실제 임금 인상
2023	5% 정도 (3% 정도)	기점	3.58% 정도 (2.12% 정도)
2024	5% 이상 (3% 이상)	가속	5.10% 정도 (3.56% 정도)
2025	5% 이상 (3% 이상)	정착	5.25% 정도 (3.70% 정도)
2026	5% 이상 (3% 이싱)	추가적인 정착	-

괄호 안 수치는 베이스업으로 정기승급 제외,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전체적인 김금표 자체를 인상하는 것

Key Point

- **무담보 콜금리(O/N) 0.75% 정도에서 운영 결정(25bp 인상, 만장일치)**
  - 금융시장 조절 방침 변경에 따라 보완당좌예금제도(0.75%), 기준대출제도(1.0%) 등 각종 제도의 적용 이율도 변경
- **임금·물가 선순환 메커니즘 유지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**
  1)물가 상승 영향에도 고용·소득 환경 개선을 토대로 견조한 소비 지속 중
  2)경단련(사측)에서도 임금 인상의 강력한 모멘텀의 '추가 정착'을 통해 적당한 물가 상승 하, 실질 임금의 안정적인 (+)화 실현에 공헌하고자 함
- **내년 중 물가상승률 일시적으로 낮아져서 1%대를 기록하더라도 (-) 실질금리 지속. '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완화적인 금융환경'이란 평가 계속될 것. 기조적인 물가상승률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내년 중 추가 인상 단행 전망**

자료: 日本銀行,「最近の金融経済情勢と金融政策運営(植田 和男, 2025.12.1)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우혜영).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증권